

농업과 세계화의 역사

‘세계화’ 과거에도 빈번, 농산물 무역확대로 촉발된 농업중심 세계화
 감내 수준 농업에는 벽차, 힘 모아 극복해야 할 교훈 제시

은 해 한국 농업의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은 미국과의 FTA이다. 농산물의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농업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한국의 농업이 변화하면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현대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세계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무역의 자유화도 현대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옛날에도 세계화는 일어났었다. 그것도 농산물 무역확대로 인하여 촉발된 농업 중심의 세계화가 일어났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얻기 위해 과거에 진행되었던 세계화와

농산물 무역 확대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로마의 밀 수입

기원 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로마와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3차례의 전쟁(Poeni War, 카르타고가 페니키아 인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이라 불림)을 치렀다. 카르타고와의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로마의 정치가 카토(BC234-BC149)는 원로원에서 카르타고 산 무화과를 보이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적이 사흘거리에 있다”고 카르타고의 숨통을 끊을 것을 선동하였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로마는 카르타고가 지배하고 있던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에스파니아의 농토를 손에 넣고 수많은 전쟁포로를 노예로 만들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기원전 183년 로마인의 추격

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살하였다. 생전에 한니발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계속 평화로울 수는 없다. 국외에는 적이 없다 해도 국내에 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과연 한니발의 말대로 로마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다. 로마가 외부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여 영토를 넓혀 나가게 되자 점령한 외국으로부터 값싼 밀이 수입되게 되었던 것이다. 로마의 소농이 생산하는 밀은 수입된 값싼 밀과 경쟁할 수 없었다. 원래 넓은 평원이 없는 이탈리아 반도는 밀농사보다는 올리브와 포도 재배, 목축업에 더 적합하였다. 올리브와 포도재배 목축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소농이 가지고 있던 농지는 점차 부농에게 집중되게 되었고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의 농지는 라티퐁디움(latifundium)이라 불리는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규모 농장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로마의 군대는 중산 자영농민 출신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중산 자영농민층이 몰락하게 되자 로마의 국력도 약해지게 되었다. 땅을 잃은 농민은 도시로 몰려와 도시 실업자가 되었다. 그라쿠스 형제(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무제한한 토지소유를 제한하고(125ha 이내) 농지를 잃은 실업농민에게 국유농지를 임대해 주는 개혁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농지를 로마의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꾸어 농지를 잃은 실업농민을 군대로 흡수하였다. 마리우스의 개혁으로 다시 강력해진 로마군은 기원전 2세기 말에 시작된 게르만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기원전 134년 농지 개혁을 시도하기 전에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들짐승도 날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이 태 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학부 교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마음껏 쉴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햇빛과 공기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략... 로마 시민은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패권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시민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흙 한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티퐁디움은 로마의 식민지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농지를 잃은 농민은 소작인(colonus)이 되었고 라티퐁디움에 편입되어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사람이라는 뜻,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BC63-AD14)는 이집트의 비옥한 밀생산지를 황제의 사유지로 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밀을 이용하여 도시의 실업자에게 무상으로 빵을 공급함으로써 비로소 황제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대항해시대와 스페인으로의 은 유입

1071년 셀주크 투르크는 시아파 무슬림인 이집트 파티마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다. 이후 소아시아의 대부분과 중동지역은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095년 비잔틴의 황제 알렉시우스 콤네누스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8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 전쟁(1096-1291)을 촉발하였다. 십자군 원정으로 북 이탈리아의 도시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다. 뛰어난 상술과 우수한 상선 건조 능력으로 지중해의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장악하고 있던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십자군 병사들을 호송하고 십자군 원정으로 유럽인들이 레반트(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 프랑스어로 '해뜨는 곳'이라는 뜻) 지역에 마련한 근거지를 발판으로 동방으로부터 향신료, 비단, 면직물을 수입하여 유럽에 판매함으로써 번영하였다.

특히 베네치아는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제국에 속한 모든 항구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특권과 관세 및 과세상의 혜택을 받았다. 베네치아는 1380년 제4차 베네치아-제노바 전쟁에서 승리한 뒤 더욱 융성하게 되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1348-1351)으로 인구가 감소하자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다. 농민은 농업불황을 생산성의 증대, 한계지의 경작 등으로 극복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공급을 증가시켜 농업불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말에 걸쳐 곡물가격이 하락하고 양모가격이 상승하자 농지에 울타리를 쳐 목초지로 전환하는 현상(인클로저, encloser)이 널리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불황은 농민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성직자, 귀족, 그리고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이들의 향신료, 비단, 면화 등과 같은 동방의 사치 농산

품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육류 소비 확대와 흑사병의 창궐은 향신료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겨울에는 가축들에게 먹일 사료가 부족하여 가축을 대량으로 도살해야 했고 이렇게 하여 생긴 고기는 소금에 절이거나 향신료를 넣거나 훈제하여 보관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유럽인들은 베네치아 상인에만 의존하는 동방무역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다 많은 동방의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동방(특히 인도)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유럽인의 동방의 농산품에 대한 욕망은 드디어 유럽에 대항해시대의 열풍을 몰고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의 선봉에 선 것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1415년 포르투갈 왕자 엔리케(Prince Henry the Navigator)는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바다를 통하여 동방(인도, 동남아시아, 중국)과 무역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작정, 본격적인 항해연구소를 사그레스(Sagres)에 세우고 동방항해도를 작성하고 유럽 최초의 원양 범선 카라벨(Caravelle)을 건조하였다.

1492년 이탈리아 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ristoforo Colombo, 1451-1506)는 오늘날 서인도제도의 산살바도르에 도착하여 신대륙(America)의 은이 스페인으로 유입 될 수 있게 하였다. 신대륙으로부터 막대한 은이 유입되자 스페인에는 소위 '가격혁명'이라 불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인플레이션의 결과 무역이 가능한 재화와 무역이 불가능한 재화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무역이 가능한 재화는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었으므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나 무역이 불가능

한 재화는 국내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격이 상승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무역이 가능한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곡물)은 쇠퇴하고 무역이 불가능한 재화(양모)를 생산하는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그러나 양모 역시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어 영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양모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자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무역으로 인하여 산업간 성장의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을 화란병(Dutch disease)이라 부른다.

‘세계적 국가’의 영광, 비용 작지 않아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화를 특징짓는 주요 현상인 ‘무역을 통한 세계적 시장 확대’는 옛날부터 꾸준히 발생해 왔다. 오늘날에는 ‘무역의 세계화’ 하면 공산품 무역 자유화와 농산품 무역 장벽간의 갈등을 생각하게 되나 옛날에는 무역의 세계화가 오히려 농산물의 무역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이 감내하여야 하는 세계화의 대가는 가볍지 않다. 로마는 계층 간의 소득분배 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스페인은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충격을 맞보았다.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 한 시대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농업도 이제 세계화의 물결 속에 서있다. 우리 농업은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희생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우리 농업의 짐을 얼마나 나누어 가질 수 있는가? 역사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시련을 겪어나갈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Y